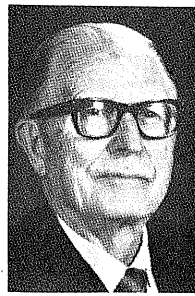




성도의 빛 5
1972

영감의 메시지

조셉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 우리는 물질적이건 영적이건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며, 보통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가장 좋은 옷감으로, 또 가장 훌륭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잘 어울려 보이는 옷을 사려고 한다면 초라한 옷감이나 서툰 기술로 만든 옷보다는 훨씬 많은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나 기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지적인 가치를 추구하려 한다면 나는 연구와 조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가끔 희생으로 이를 대신 해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구원과 승영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일을 하지 않거나, 기꺼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려 하지 않고는 영생을 물려 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11:30) 이 말씀은 인간이 싼 값으로 하나님 왕국에서의 승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가격을 제의하는 사람도 있으나 인간은 다만 자기가 치룬 값에 대한 대가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와 그의 위대한 대속의 희생을 수동적으로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한 자녀에게 주시려고 싸놓으신 위대한 축복을 싼값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8권 제 5호 순서 1972년 5월호

■ 대관장단 메시지 :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조셉 필딩 스미스	1
헌납된 두곳의 신전 도일 엘 그린	4
와싱턴 신전 후랑크린 밀러 스미스	6
킹 폴렛트를 애도함 요셉 스미스 이세	8
혼란중의 옹화	13
시련의 시간 헨리 데이 테일러	14
생의 목적; 증거할 후랑크린 데이 리차즈	16
책과 아이들과 부모에 관하여 엘리엇트 데이 랜더	19
친구가 친구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21
어둠에서 광명으로 데일 킬본	23
야곱 마벨 존스	24
우유통 매리 프랫트 패리시	26
젊은이는 누구나 선교사를 마치고자 하는 소망을 지녀야 리그랜드 리차즈	29
계명이 다시 쓰여져야 할까? 리차드 엘 이반스	32
여러분과 가정복음 교육교사 조지 두런트	35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 보이드 케이 팩커	36
질의응답	39
정책 및 절차	43
결정 엘드레드 지 스미스	44
새로운 관리 감독단	46
■ 선교부장단 메시지 부라운 선교부장	47
■ 내외소식	48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2년 5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82호

편집겸 발행인 : 엘 에드워드 부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1권 100원
1년 (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 이번 성도의 벗은 79년만에 또다시 유타 주에 건립된 신전의 헌납을 기념하는 특별 호로 발행되었다. (참조 기사 4페이지) 오그멘신전 (전면)과 프로보 신전 (후면)의 아름다운 사진은 엘돈 린쇼튼과 메릴 고간이 찍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대관장 죠셉 필딩 스미스

141차 반연차 대회에서 행한 연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또 다른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말일의 위대한 사업의 거룩함과 진실성을 간증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축복받고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출 19:6)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고대에 우리의 선조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신 7:6 참조)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영원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있는 커다란 힘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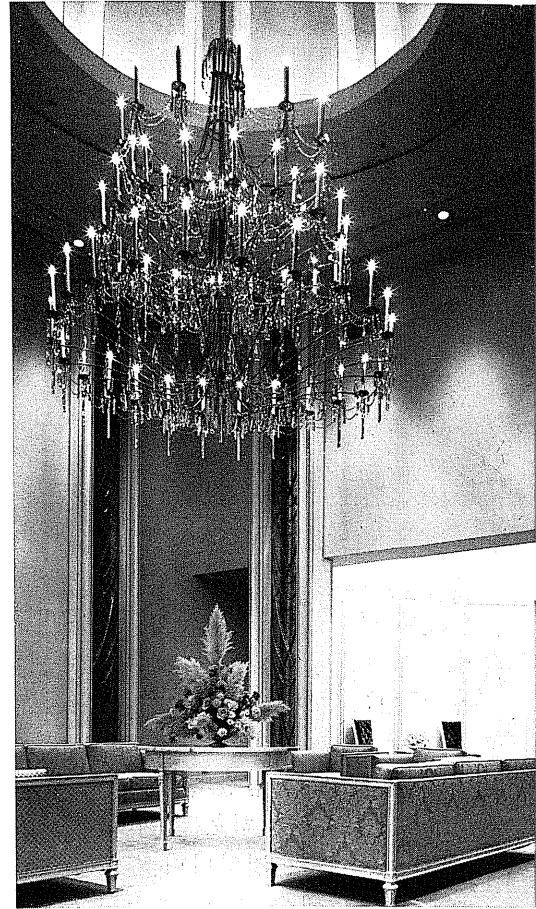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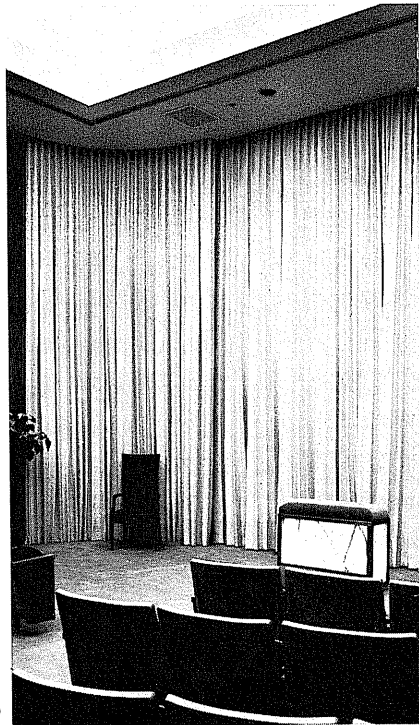
의 경륜 시대에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시는 진리의 빛속을 걷는 한 무서운 재앙이나 세상의 조건에 고통을 당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지혜와 고대의 예언자에게 주신 성약과 약속의 성취로 주님께서서는 말일에 그의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란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놓이기 이전에 천국 회의에서 이미 결정되고 확립된 것이며, 이제 다시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기 위하여 새롭게 나타내진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에 의하면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피를 흘



헌납된 두곳의 신전



도일 엘 그린 교회 잡지 책임자

● 유타 주의 오그덴과 프로보에 있는 두 개의 신전이 1972년 1월과 2월에 헌납되었습니다. 이 신전은 헌납으로 솔트레이크 시 이외의 인구조밀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으며, 솔트레이크, 로간, 맨타이 신전으로 밀려 들던 성도들의 수가 줄게 될 것이고, 매년 수 많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유타 주에서 마지막 신전이 완성되고 헌납된지 79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지막 신전은 1853년에 시작되어 40년 후인 1893년 4월 6일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헌납한 솔트레이크 신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두 개의 신전 헌납을 주관하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열 일곱 살의 청년으로서 솔트레

이크 신전의 헌납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신전이 세계의 여러곳 즉 하와이, 캐나다, 아리조나, 아이다호, 로스 앤젤리스, 오크랜드, 스위스, 영국, 뉴질랜드 등지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와싱턴 근교에서 건축 중인 또 하나의 신전은 1974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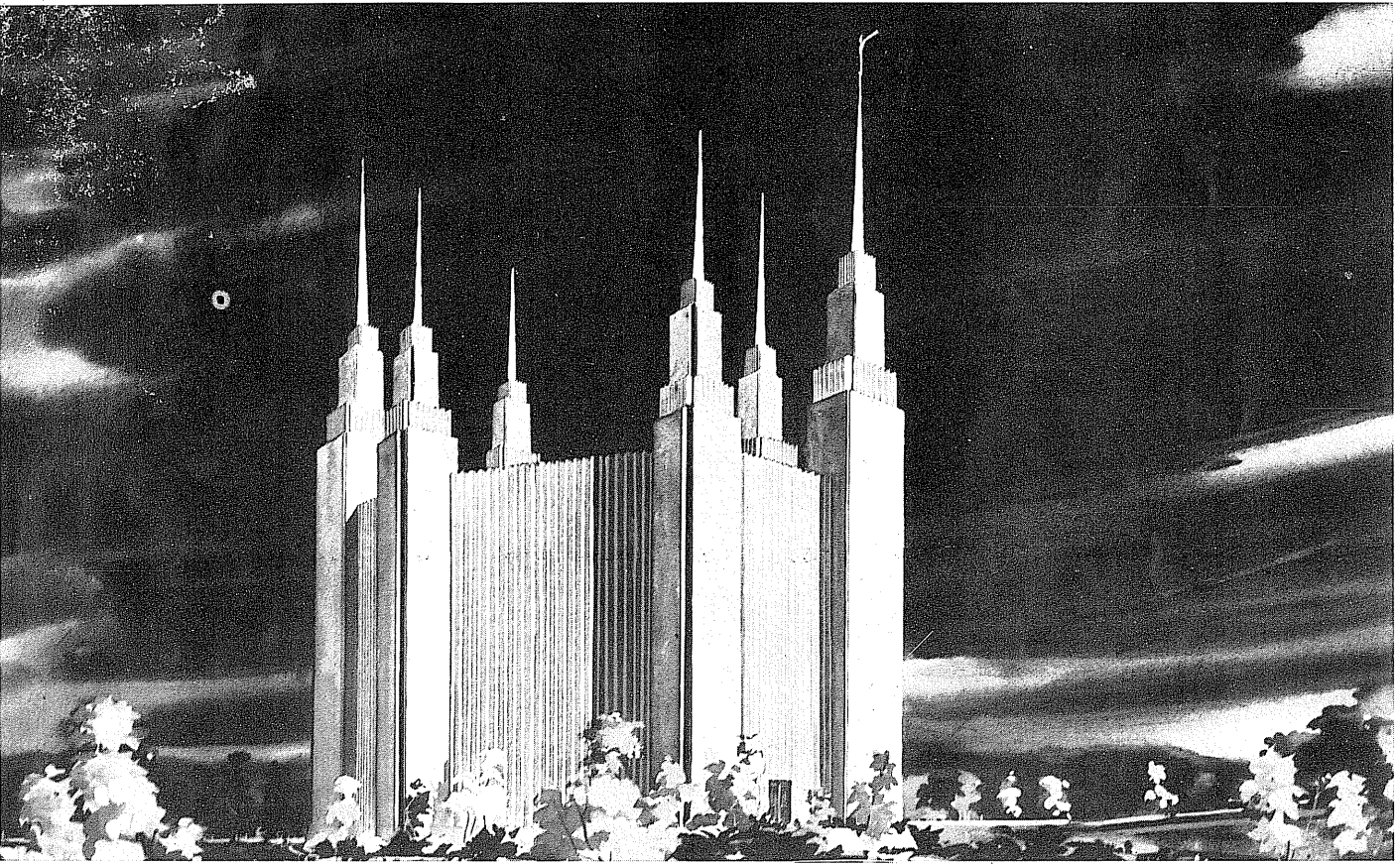
유타 주의 성도를 위한 또 다른 신전 건립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느껴져 왔었습니다. 프로보 동북쪽의 어느 언덕이 수년전부터 템플 힐이라고 불리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신전을 보리라는 꿈은 그곳이 부리감 영 대학의 건축지로 결정됨에 따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921년 5월 16일자 오그덴 발

메저렛 뉴스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과 안소니 더블류. 어빈스는 지역 교회 역원들과 함께 일요일 이른 아침에 신전 건설을 위한 대지를 살피기 위해 이곳을 둘러 보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읽을 수 있습니다. “계보 및 신전사업을 위한 회원의 활동 증가와 솔트레이크 신전의 제한된 인원 수용 문제 때문에 이 도시에 새로운 신전이 건립되리라는 계획은 몇년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1966년의 통계에 의한다면 13개의 신전이 움직이고 있지만, 52퍼센트의 신전 의식 사업은 솔트레이크, 로간, 맨타이 신전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간이나 맨타이 신전의 증축



의 물결은 그칠 날이 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뜻 깊은 신전은 교회를 대표하는 장소가 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상징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신전은 사람이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아 무성하게 숲이 우거진 워싱턴의 북쪽 57에이커의 대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중 11에이커가 정지될 것입니다.

이 대지는 다른 신전이 있는 곳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사방이 정원 처럼 꾸며진 이 곳의 주위는 소규모의 진귀한 식물의 전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주변에는 많은 화단과 관상목과 장식용 수목이 있게 될 것이며,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숲 사이에는 말채나무, 철쭉나무와 진달래를

심게 될 것입니다.

신전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주위의 숲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주택이나 상업 시설이 신전의 특성을 해치지 못하게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집니다.

대관장단이 승인한 신전 건축 계획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쥘트레이크 신전의 뾰족한 탑의 모양을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모로나이 천사의 상까지의 높이는 288피트입니다. 신전은 모두 칠층으로 칠층에는 조용한 회의실이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해의 왕국실과 그 옆에 있는 여섯 개의 의식실이 갖추어 지게 되는 데 이것은 오그멘이나 프로보 신전의 설계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워싱턴 신전은 대리석으로 길을

장식하는 최초의 신전이 되는데, 이 대리석은 알라바마 주에서 가져오게 될 것이며 가볍고 흰색으로 눈부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백케이 대관장은 1968년 11월 15일 교회가 이미 매입한 대지 위에 신전을 건설할 것이 결정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휴 비이.부라운이 1968년 12월에 신전 대지를 헌납하였습니다.

1974년 초까지 신전은 완성될 것이며 그 해 봄에 일반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의식의 집행은 그 해 여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신전은 미국 동부 해안 지대에서 캐나다에 이르는 전역에 있는 30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

몰론 사상의 정수

킹 폴렛 를 애도함

요셉 스미스 이세 (1805~184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초대 대관장

● 다음은 1844년 4월 7일 일리노이주 나부 시에서 열렸던 교회의 대회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행한 킹 폴렛을 애도함이라는 설교의 후반부이다. 본내용의 전반부는 성도의 벗 4월호에 게재되었다.

독자들은 이 말씀이 4명의 형제가 받아 쓴 기록을 통해 다시 정리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설교가 행해진 후 몇달 안되어 예언자는 적들의 손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다. 이 기사는 교회 정사 제6권 302~317페이지에서 발췌되었다.

불멸의 영

나는 인간을 승영으로 이끄는 내용을 지닌 또 다른 제목의 이야기를 해야 하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길게 이야기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시간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으므로 간단히 훑어 보기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 즉 영혼—인간의 마음—불멸의 영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모든 유식한 사람들이나 신학 박사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것을 창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그러한 생각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한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를 믿지 못한다하더라도 여러분이 진리를 무용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이를 믿게끔 할 것입니다. 이제 좀 고상한 것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옳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이와 똑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인간은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만드셨고 여기에 영을 넣어주셔서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7 참조) 히브리 경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경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창조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곳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그에게 아담의 영을 넣었고, 이로써 살아 있는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예지는 하나님 자신의 것과 서로 같습니다. 나는 나의 간증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애통해 하는 이들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들의 친척이나 친구는 언젠가는 잠시 동안 육신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던 그들의 영은 잠시동안 육신을 떠나게 되는데 즉 그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장소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영은 불멸하다는 것을 꼼꼼히 생각합니다. 영의 예지는 불멸 그것이 시초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입니까? 영의 예지는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영이 없었을 때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영원히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간의 영에 관해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육체와 영—죽은 자 실체에 관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반지를 빼서 불멸한 요소인 인간의 마음에 그것은 비유해보겠습니다. 이는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반지를 반으로 잘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붙이면 그것은 영원히 끝이 없는 원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신 것 처럼, 만일 그것이 시작이 있다면 그것은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초기부터 인간의 영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나 학식있는 자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이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교리가 진실하다면 멸망의 교리 또한 진실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영을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는 것을 감히 세상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예지는 영원하며 자존의 원칙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오던 영이며 그것은 결코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보내신 모든 마음과 영은 모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원칙은 하나님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영들과 영광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보다 지적인 분이므로, 율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발전할 수 있게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지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줍니다. 그는 연약한 영들을 가르칠 율법을 제정하는 권능을 가지셨고 그들이 자기처럼 성장해서 서로 영광을 누리며 영의 세계에서 구원받기에 필수적인 지식, 권세, 영광, 예지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훌륭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맛을 지녔습니다. 나는 영생의 원칙을 맛 볼 수 있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원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께서 그것들의 맛을 보시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끝이 달다는 것을 알며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역시 영생의 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훌륭함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 나에게 나타내진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달콤하고 점점 기쁨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해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죽은 자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상 생

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육신에 관해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모든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나타내졌으나 우리가 전혀 육신을 가지지 않았던 것 처럼 우리의 영에게 나타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구원할 그러한 계시는 우리의 육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육신의 분해가 없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서운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몸으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영은 영으로 복음에 순종하거나 정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겠습니까? 인자의 명령에 복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조나 친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없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기 위하여 40일간을 주님께 주야로 간구하였습니다. 나는 내가“타락한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책임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비록 육신은 땅 속에서 썩는다 하더라도 영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떠한 인품을 지녔던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은 언제나 영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며 우리처럼 사물을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상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중의 한 분은“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인봉의 권세가 우리의 손에 있어 때가 찬 복음

의 경륜의 시대에 자녀나 죽은 자를 인봉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약속을 이 경륜의 시대에 이루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울의 말을 좇겠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우리없이는 당신도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이나 후에 올 사람도 우리와 똑 같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라.”(말 4:5~6)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인간의 상태에 관해 적합한 규정을 제정하셨는데 이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와 꾀방과 범법은 단 한가지의 제외하고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지상에서나 다음의 세상에서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세상이나 영의 세계에는 그들이 지켜야 할 준수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 거하는 모든 영은 지상에서나 영의 세계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규칙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가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영원한 세계에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친구가 지상에

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분해된 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는 못하며 다만 이를 피할 길이 있을 뿐입니다. 지식이 인간을 구원해 줍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지식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인간이 승영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 없이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큰 죄를 범했다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곳에서나 영의 세계에서 복음에 순종하기로 동의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죄자요 박해자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걸어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실망의 고통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고통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전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이해합니다. 나는 누구라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나 육신이 분해된 다음에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악과 대항하여 승리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것이 그를 한곳에 잡아 두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세주로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까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 전쟁이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악마의 말처럼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다름으로 천국



회의에 이 계획이 제외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하나님께 대항을 했고 그에게 머리를 들렸던 모든 자들과 함께 던지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서—값진 진주 4:1~4, 아브라함서 3:23~28)

죄사함

성령을 거스린 죄 이외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께서는 멸망의 자식 이외에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는 성령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림을 받고 하나님을 아나 그에 대해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린 죄를 지은 다음에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태양을 보면서도 이것이 비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며, 하늘의 문이 열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하며 눈을 떠 진리를 볼 수 있으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그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배도한 많은 사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적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는 나를 해치며, 나를 죽이려 하며 나의 피흘림을 보려고 온갖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는 악마의 영을 가지고 있으며 구세주를 십자가에 달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영과, 성령을 거스린 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악마처럼 공개적으로 대항해 올 것이며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신중히 할 것을 충고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속임수에 말려 들어가

기 때문입니다. 항상 침착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쓰라림이 있다해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회개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도 말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유혈극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살해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요 악마의 영인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일을 이루어 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성격을 버리도록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나 다가 오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해서 흥미로운 모든 것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고전 15:41)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을 위하여 큰 기대와 위안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함당하게 생활을 하였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팔에 안겨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해의 영광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해의 영광입니다.

상을 당하신 가족들은 킹 폴렛트 장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갖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 죽은 자의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할때에도 여러분의 아끼던 친구는 완전한 축복속에서 해의 영광을 가나, 다른 많은 영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 천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나 희망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훨씬 이상의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겠습니까?

나는 성령의 권세로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폴렛트 형제]의로운 세계로 갔기 때문입니다.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의 간증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의 세계의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친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성도들이여! 박해 가운데서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숨진 여러분의 친구들은 해의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며 살인자들은 그들의 죄가를 모두 치를 때까지 고통속에서 해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미 영의 세계로 간 아버지, 형제, 자녀, 친구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잠시 동안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영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곧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드높게 울려 퍼질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구나 우리

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폭도나 박해나 소송이나 체포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한 축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시 침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성령에 의한 침례가 아닌 물의 침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기 위하여 물과 영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독어 경전을 보면 내가 과거 14년 동안 그 문제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던 계시를 그대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와 일치하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간증은 항상 진실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침례 요한의 선언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독어판 경전을 읽는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나 권능(열쇠)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의 침례를 베풀 것이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파당적인 세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이러한 간증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모두 분명히 파문과 같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그 경전이 진실함을 압니다. 나는 그것이 진실함을 알고 있는 독일인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하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는 소리가 들림)

알렉산더 캠펠이여*! 어떻게 당신은 물만으로 인간을 구원합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아닌 자기의 침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 캠펠, 알렉산더(1788~1866) : 아일랜드 배성 미국인 목사.

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히 6:1~3)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예수, 유일한 부름의 희망, 유일한 침례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정죄의 기초를 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나를 무시하는 이론이 있다는 어떤 것이라도 도전할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독일어에 관해 조금씩 언급을 해 왔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은 내가 독일말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을 압니다.

둘째 사망

당신들 모든 제사들이나 모든 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두 귀담아 들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며 여러분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성령을 거스린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용서 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는 끝이 없는 지옥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상에서 유희의 참극을 조작해냈듯이 그들은 불과 유희의 못에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속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갈망 속에서 거하는 분이기 때문이며, 어떤 사람은 음행 때문

에 정죄를 받으려 부활하는데 그는 불과 유희 못에서 처럼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말씀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자유인이나 속박에 있는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를 관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적의를 갖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부 사람의 행위를 증오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벗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신앙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구를 책망했을 때 그가 나를 시기하거나 증오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특히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든 나의 벗들의 간증들을 들 때 나의 기쁨은 한량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의 마음을 결코 모르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시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비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겪은 경험을 갖지 않았다면 나는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이래 결코 남을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음성은 항상 평화를 갈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악한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대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저울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은 그 때에야 나에게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빕니다. 아멘. ○

혼란중의 용화

●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으로 훌륭하나 그중에서도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구원의 원리가 모두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꼭 어느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조율한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믿음성도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원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된다.

1834년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미조리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문제의 일부는 성도들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그러나 보라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 순종하기를 아직도 배우지 아니 하였고 도리어 온갖 악이 가득하며 성도로서 험담하게 저희 중에 가난한 자와 괴로움을 겪는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 하는도다.

“또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용화 단결에 따라 일치 협력하지 아니 하는도다.

“자손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 하므로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재게로 받아 들일 수 없느니라.”(교성 103:3-5)

이보다 몇달전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 “.....저

들 가운데 알력과 논쟁, 시기와 분쟁 및 욕욕과 탐욕이 있었나니, 그리므로 이로써 저들의 상속의 땅을 더럽혔느니라.”(교성 101:6)

큰대 이스라엘에 전하여 주신 위의 말씀과 하나님께 모든 진도가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7:21참조)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단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사실로 이것이 해의 영광의 왕국의 원리이며 우리가 모든 율법에 따라 살기전에는 시온은 건설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단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때인만큼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교회에 속하게 된 모든 회원과 참차 교회로 들어올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각각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살아 왔다. 어떤 점은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고 어떤 점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다. 그 정도야 어떤든 우리들은 모두 서로 다른 유산을 갖고 있으며 각각 다른—문화적으로, 지리적, 경제 사회학적으로—환경에서 서로 다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 왔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치로 잘타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단합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용화 단결에 따라 일치 협력”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받아 들이기에 합당할만큼 정결하게 되었거나 준비가 되었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금 심한 이야기 처럼 들릴지 모르나 이것이 영생을 얻는 어려운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연석이기도 한 것이다.

교회에 속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정은 완전히 하나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 불화와 혼란으로 비틀거리지는 모든 의도와 지부에도 단합과 조화의 질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단합을 지극적인 행동 목표가 되어야 하며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달성하겠다는 첫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결론으로 우리들은 모두 해의 왕국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일체의 언행이나 체로나 자세 등등은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한다.

용화란 불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우리가 공동의 목적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면 상호간의 차이는 오히려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것 처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 예언자 아부라함은 주님의 종애를 받았읍니다. 그는 지상에 오기 전에 위대하고 고귀한 영으로 있었다는 확신을 받았읍니다. 그는 이 지상이 전세계에서 살던 영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 살 수 있는 장소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모

니다. 이것이 복음 계획의 전부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영의 존재로서 천국회의에 참석했으며 그곳에서 복음의 계획이 논의되었고 우리가 승인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영예로운 순간이 아닐 수 없읍

영향력을 미칠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예언자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예언자가 순교당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었읍니다. “세상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구나.” 그는 부리감 영과 다른 사도들

시련의 시간

헨리 디 테일러 장로

십이사도 보조

141차 반연차 대회에서 행한 연설.

든 것들을 이들이 실제로 행하였는가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지상 생활은 그러므로 시험의 단계인 것입니다.

지상의 생활은 원만하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그의 사악한 추종자들은 인간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길을 잃도록 온갖 사악함과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계명이라는 지침을 알려 주셨는데 우리가 이를 따르다면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선택하는 특권과 책임은 인간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

니다. 복음과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교회가 확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사람을 통해 끊임없는 인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생활을 하면서 참아야 하고 극복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곳에서의 생활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그의 계명을 지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를 지지합니까?

“야생의 수양”이라고 알려진 라이만 와이트는 이 경륜의 시대 초기 사도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진 분으로 그에게



과 인연을 끊고 몇명을 이끌고 텍사스로 갔는데 그는 마침내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부리감 영과 성실한 성도들은 서부로 가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이만 화이트는 시험을 당했고 결국 이에 지고 말았습니다.

후일에 베드로로 알려졌으나 어부였던 시몬은 이미 예수는 구세주라는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형 안드레에게 의해 예수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처음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베드로)라 하리라. 이것은 번역하면 돌(바위돌)이란 뜻이니라.’.....그래서 그때부터 시몬은 시몬 베드로 혹은 ‘바위같은 시몬’이라고 불리웠습니다.”(마태복음 16:18-19)

예수께서 베드로에게서 느끼신 바위와 같은 성품은 모두 한꺼번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구세주를 배반할 때에 베드로는 세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깊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마침내 예수께서 처음 보셨을 때 베드로라고 부르신 이름이 뜻했던 것과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시몬은 마침내 바위와 같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심한 시험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다른 몇몇 사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축복받는 순간부터 모두 사탄의 힘이 그에게 밀어닥쳐왔습니다.

중상과 모략과 테로와 부당한 감금, 인간 이하의 대우와 경멸 등으로 그의 영혼은 무한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친구는 물론 주님까지도 자

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심한 고난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뇌에 차서 다음과 같이 외친 적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교성 121:1) 그리고 나서 그는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압박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위안의 말씀이 들려 왔습니다. “나의 아들이,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네 친구는 네 편이 되어 따뜻한 마음과 우정 어린 손으로 또 다시 환성을 울리며 너를 마지하리라.”(교성 121:7~9)

요셉 스미스는 진실하고 성실했으며 자기에게 부여된 신망을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습니 다. 그의 동료들도 다음과 같은 말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앞에서 위대한 생애를 보냈고 또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께서 기쁨 부으신 자 대부분이 그러하였듯이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하였고.....”(교성 135:3)

요셉 스미스는 참으로 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였고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기대되었던 모든 사항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모든 세대에는 그 세대의 독특한 유혹이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세대에 특유

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며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생애가 끝나도 또 다른 삶이 있게 된다는 생각을 비웃고 맙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주장하며 지상 생활의 책임을 묻는 곳도 없고 심판의 시간도 없는데 죽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고 합니다.

알콜이나 담배나 습관성 약이 신체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불법적인 성행위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부정도 있을 수 있다고 목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여 영적인 것의 중요한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은 유혹 속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젊은 사람만이 이러한 시련과 유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러한 것을 겪게 됩니다. 구세주처럼, 우리는 모두 우리의 깃세마네 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리하이 가 말한대로 쇠막대기를 굳게 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암흑을 뚫고 광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길을 잘못들어 강에 빠지거나 낮은 곳에서 방황치 않게 된다면 아부라함이 본 인생의 시험을 무난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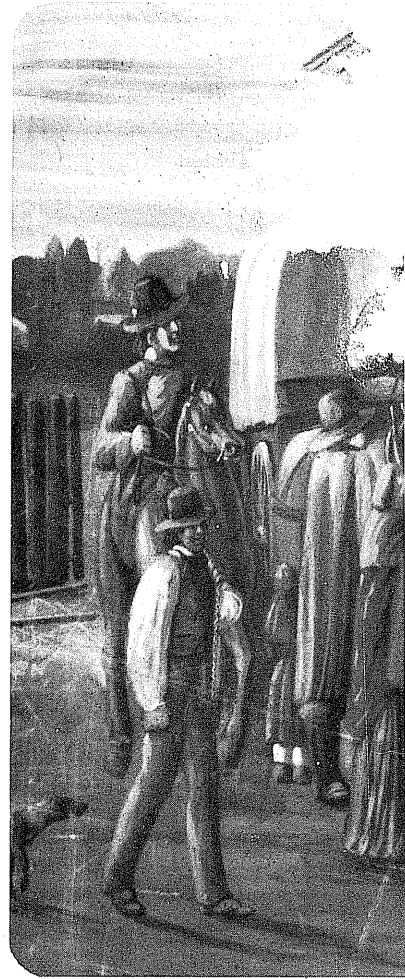
모든 노력과 투쟁과 슬픔은 다 가치가 있는 것인 바, 이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양식이 되기를 빌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생의 목적 증거 합

후랑크린 디이.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보조

141차 반연차 대회에서 행한 연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반연차 대회에서 말씀드릴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훌륭한 지도자의 영감에 찬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특별한 권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땀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창 3:19)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구라파의 큰 대학교 입구에 “십령의 교뇌와 이마의 땀이 없이는 가치있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글귀를 적은 현판이 걸려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엘라 윌러 윌콕스는 그의 아름다운 시 “갯세마네”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조만간 여정을 떠난 사람은 모두, 동산의 문에 이를 것이며 : 그곳의 암흑 속에서 무릎을 꿇고, 무서운 절망과 다투게 되리라. 하나님이지어 ‘나의 뜻대로 마음시키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나 다만 ‘이 잔을 들리시옵소서’라고 말

하나 갯세마네의 목적을 모르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난이나 불쾌했던 경험을 추구하려는 것이 인간의 습성은 아니지만 인간의 성장과 발전 가운데 있는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은 그것을 겪는 사람이 실망을 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발전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대성이나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는 대개의 경우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흥미롭고 시련이 뒤 따랐던 경험의 두



가지를 든다면 시온의 캠프와 리버티 감옥에서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위인들의 생애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조리 시절의 교회 성도들은 무한한 박해를 받았으며, 예언자 요셉은 기도를 통하여 1834년 1월 24일 계시를 받았읍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에게 적어도 100여명의 젊은이들을 모아 시온의 땅인 미조리로 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교성 130 : 19~34참조)

약 150명으로 구성되는 시온의 캠프는 1834년 봄 오하이오 주 커틀랜

드에서 조직되어 서부 미조리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이 미조리에 도착했을 때 이 캠프는 26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미조리의 성도들과 합류하여 제슨 군과 인근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미조리 성도의 많은 재산을 빼앗은 폭도들로부터 토지를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조리에 도착한 후 주지사 던크린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온 캠프를 일시 해산하고 시온의 구원을 위해 장차의 기회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온 캠프를 구성하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커틀랜드로 다시 돌아 왔는

데, 이곳이 그 당시 교회 활동의 중심산이었습니다.

“시온 캠프의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과가 없고 실패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여정에 가담하지 않고 커틀랜드에 남아 있던 어느 형제는 다시 돌아 온 부리감 영을 만나자 “요셉 스미스와 이 여행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리감 영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게 아우가 군(당시 커틀랜드 소재지였음)의 복리를 위해 이 여행에서 얻은 경험을 최대로 활용할 작정입니다.”(비이 에이취. 로버즈, “부리감 영의인품”, 임프르브먼트 이라 6권(1903년) 567페이지)

그 여정은 일천 마일에 달했으며 내적인 불화와 외적인 박해가 따랐습니다. 고난과 실망이 있었으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후일 미조리에서 나부까지의 만 이천 성도가 쉽게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나부에서 솔트 레이크로 가는 서부로의 대이동에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1835년 2월 시온 캠프의 일원으로 서 예언자 요셉을 따라 미조리에 갔던 형제들은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여지게 되었고 이들 가운데서 십이사도 정원회가 구성되었고 칠십인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언자는 시온 캠프의 구성원들이 참은 고난과 시련은 헛되지 않았으며, 목숨을 걸고 시온에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성임되고 최후까지 이 사업을 위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교회 정사, 2권 182페이지)

이러한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시온 캠프의 경험은 이에 참여한 사람이나 교회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교회사 중 암흑 시기는 1838~39년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참히 박해를 받고 재산을 몰

수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예언자와 그의 동료들이 모함을 입어 리버티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열과 배도가 도처에서 자행되었고 교회는 존망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흑시기로부터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물론 끊임없는 경험을 통해 교회를 이끈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모두가 아닙니다. 이러한 암흑 시대에 주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그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위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잠시 동안 리버티 감옥은 주님의 지시를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부리감 에이취. 로버 쟁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눈길은 용기와 주님의 말씀인 권고의 나오는 리버티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가 있는 한 그곳은 감옥이라기 보다는 신전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곳은 명상과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신전이란 무엇보다도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무한함을 찾는 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무한함인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곳은 성스러운 장소인 신전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권 526페이지)

하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이,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교성 121 : 7~8)

예언자 요셉은 만일 큰 고난이 그에게 닥치고 심지어 “지옥의 바로 그턱이 베키 크게 입을 벌려 삼키려 할 지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베키 경험히 되고 베키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

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 (교성 122 : 7~8)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위 감옥 신전이라고 부르는 리버티 감옥에서 받은 가장 위대한 진리의 하나는 신권과 교회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와 성약 121편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교성 121 : 34~36)

언젠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가르치고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 (존 테일러의 회고, 설교집 10권 57~58페이지) 교리와 성약 121편에 수록되어 있는 의로운 다스림의 교리는 어떻게 교회 회원이 올바른 원칙을 배우고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는가에 관한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생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증거하고 시험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온의 캠프나 리버티 감옥의 경험은 그것에 참여한 자를 위한 햇불이 되었으며, 합당하게 발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 위해 인생에게 겪게 되는 고난과 복잡한 상황의 필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확실히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교회 초기 지도자의 위대성을 알게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온 캠프나 리버티 감옥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중요성과 교회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느낄 수 있으며 둘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참는 인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의 권고를 따르고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기꺼이 받아 들이고, 모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끝까지 견디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 두지 말고, 신권을 행사하여 의로운 통치 원칙에 순응합시다. 그렇게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성장과 발전과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 (교성 14 : 7) 을 얻게 됩니다.

시온의 캠프나 리버티 감옥의 경험을 느꼈던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성령이 이러한 증거를 나에게 주셨고,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권능이 주어졌고, 충분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 조셉 필딩 스미스가 오늘날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것을 알며 주님께서는 그의 중요한 부름을 축복하시고 지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시온의 캠프나 리버티 감옥에서 배운 위대한 교훈을 결코 잊지 말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 때 이러한 것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할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성공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대처해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선교사의 추억

● 시골에 있는 휘트니 와드는 훌륭한 감독과 뛰어난 선교사업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은 와드입니다. 회원들의 흥미와 관심을 새롭게 할 목적으로 감독은 귀환 선교사에게 빠짐없이 주일학교 시간에 특히 어린 사람을 위한 간략한 선교 사업의 보고를 하게 하였고 저녁 성찬식에서는 완전한 보고를 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왜 선교사들이 그토록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행복했던 이년 반”이었다고 이야기 하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기도 했지만 어린이들은 하나 같이 꼭 “선교사업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일찍 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몇살이 되어야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요?” 어떤 주일 날, 주일학교가 끝난 다음 아론신권 소유자 한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의 의문은 선교사업을 보고 해준 두 귀환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는 되어야 하고 또 합당해야 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내가 합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합당한것 같다고 대답하시면서 그런 것은 감독님이 결정하시는 문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독님께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 달라고 말씀 드리렴”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한 구



친구가 친구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석에서 간략하면서도 철저한 접견을 하신 다음에—오 육십년전에는 교회에 감독실이 따로 없었습니다—감독님은 내게 추천서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 추천서를 아버지께 보여 드리자 아버지는 키가 큰 백발의 신사에게로 얼굴을 돌리시고 “오늘 우리 스테이크의 축복사이신 델리 형제가 방문하셨단다. 그 추천서를 보여 드리고 언제 축복을 받게 될지 알려 주십시오 말씀드리지 않겠니?”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사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서 나의 사위인 윈워드 형제의 집에 까지 가 준다면 오늘 당장 축복을 하겠다.”

이 거룩하게 보이는 키 큰 노 신사의 팔을 끼고 길을 걸어올라가 마침내 농장의 주택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 농가의 방이 전혀 새로운 의식을 갖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윈워드 형제는 기록을 맡았고 이 노 신사는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소년이 간절히 기도

로 간구했던 바를 응답으로 내게 부여 주셨습니다. 그 분은 내가 성실하기만 하면 내가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이 땅의 나라에 세상의 간악함을 전하고 회개를 가르치는”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과 또 다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행복과 확신에 찬 나의 기분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했으며 그런 기분으로 농장에서 집으로 걸어온 나는 그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속된 축복이 이르기 전에 우리 가족 모두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시골 지방에서는 성찬식이 오후 2시에 열리던 때 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모두 탈 수 있는 흰 색 지붕을 한 쌍 두마차를 타고 집회에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었으므로—전염병이 돌고 있었다고 생각됨—성찬식에는 부모만 참석하고 아이들은 집에 남아 있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만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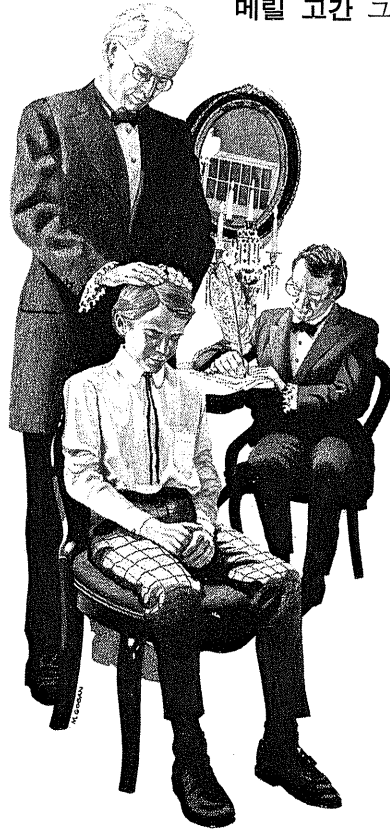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돌아 오셨을 때 우리는 그전에는 한번도 본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똑 같이 소리내어 울고 계셨습니다. 형제 중에 제일 만이었던 나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쭙었습니다. 어머니는 별 일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시지요?”

우리들이 물었습니다.

“우선 집으로 들어 가자 자세히 이야기 해 주마”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메릴 고간 그림



우리들이 모두 거실에 있는 낮은 소파 주위에 둘러 모이자 아버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신 자초지종을 들려 주셨습니다.

성찬식이 끝나자 농부들이 편지를 찾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게 문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엔 잡화 가게 안에 우편물 취급소가 있었고 우체국은 따로 없었습니다. 잠깐씩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우편물을 정리 하므로써 평일에 다시 농부들이 여행을 하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성찬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어머니도 가게에 들려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말을 붙고 어머니는 편지를 뜯으셨고 그것이 나 사서함에서 발송된 편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달되는 선교사 소집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만 해도 선교사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따위를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감독이 모두 알아서 처리하면 그만이었으므로 선교사의 부름은 언제나 예고없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선교사를 갈 수 있을 만큼 합당한 것이 감사하게 여겨졌고 또 그만큼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2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울었다. 너희 엄마와 나는 결혼한 이래 이틀 밤 정도를 떨어져 있었을 뿐이다. 계곡에 내려가서 담을 치고 전선 공사를 할 때나 재목을 자를 때였지”

아버지는 어머니와 일곱 자녀를 남겨두고 선교사업을 떠나셨습니다. 여

덟번째 동생이 아버지가 떠나신 사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농장은 아버지의 선교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조금 크게 증축한 농장의 집으로 옮겨 들어갔고 그래서 여백이 생긴 밭은 세를 주었습니다. 우리들 어린 형제들은 매일 매일의 어머니의 격려와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축복의 편지로 격려를 받으면서 가족에게 출진초를 거두고 농장의 일을 해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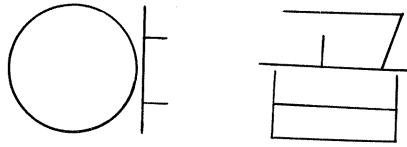
어려운 이년이었지만 보람과 긍지의 이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번도 어머니가 불평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부르시던 노래를 부르시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아이오와주 다벤포트에서, 일리노이주 스프링 필드에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그리고 아이오와주 라

피드스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편지와 가족들의 단합으로 우리 가정은 선교사 정신으로 충만했으며 한번도 풍성한 선교사 정신이 와해될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나는 어머니 침대 옆에서 어머니가 선교사로 떠나는 다섯째 아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배가 선교 지역에 머물어 임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 조지야” 그후 몇주가 지난 뒤 대관장단으로부터 남부 스테이트 선교부에 계신 리그랜드 리차드 선교부장에 어머니의 별세를 알리는 전보가 날라 왔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의 별세를 알리는 전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어머니께서 당부하신 말씀과 가정의 선교사 정신으로 말미암아 조지는 선교 지역에 머물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선교사업의 정신으로 인하여 어린 두 아들이 선교사업에 대한 굳은 결의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십이 남매 중의 몇몇의 선교사업 뒷 바라지를 해 주셨던 아버지는 비회원이며 유능한 시민이요, 덕망높은 하원의원으로부터 이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카체 계곡에서 가장 뛰어나게 선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분을 문었습니다.”

이처럼 언어와 행위와 모범으로 언제나 위대한 구세주의 선교사 부름에 충실하셨던 아버지를 모신 우리 열한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



물론경이야기/마벨존스가뵈옵김 게리카프 그림

● 어린 아이들에게는 대개 저들의 아낌없는 칭찬을 받으며 언제라도 기쁘게 따라 나가고 싶다고 느끼는 영웅이 있는 법입니다. 야콥은 그의 형인 니파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니파이가 하라는 대로 늘 순종했으며 그를 따라 황막한 광야를 지났고 대해를 건넜습니다. 야콥에게 그의 형 니파이는 진정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야콥은 그의 형들이나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살때에 누렸던 온갖 부귀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리하이와 세라이아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멀고 어려운 길을 걸었고 마침내 대해에 이르렀습니다.

야콥은 피곤함과 배고픔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 니파이가 굶주리는 가족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니파이가 성난 레이먼과 레뮤엘을 달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야콥의 나이는 아직도 꽤 어렸지만 아버지 리하이는 아주 늙게 되었습니다. 리하이는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주기 위해 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의의 갑옷을 입으라”(나이2:2, 4참조)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콥에게 “광야에서 얻은 첫 아들이 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으며...너는 아직 네가 어린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네게 복이있도다.”

야콥도 그의 형 니파이와 같이 레이먼과 레뮤엘의 횡포로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은 점점 더 잔악해지고 거칠어져서 니파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는 니파이에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속히 광야로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야콥도 니파이를 따르는 무리와 더불어 그를 쫓아 나섰습니다. 일행은 한곳에 머물어 그 곳을 니파이 땅이라 하였고 그 후로는 그 일행이 니파이인이라고 일컬어 졌습니다. 야콥은 니파이의 도움으로 집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니파이가 신전을 짓는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니파이는 야콥과 야콥의 동생 요셉을 각각 제사와 교사로 임명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야콥은 방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니파이 백성들에게 시렘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여러가지로 아첨하는 말과 남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유포하면서 야콥의 신앙과 예수를 증거하

는 그의 간증을 파괴하려 하였습니다.

시렘이 야콥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콥 형제여 심히 당신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 열심으로 이룬 바 복음이라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전하여 그 가르침을 내가 들어왔고 또 알고있음이라. 또한 그대는 이 백성들을 혹하게 하여 저들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게 하며 올바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을 변경하여 지금으로부터 수백년 후에 오시리라 하는 자를 경배하게 하였으니, 보라 나 시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임을 선언하노라. 이는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못함이라.”

그러자 야콥은 주님의 영감을 입어 시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경전을 믿으시오? 그렇다면 경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오. 경전은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소.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으나 성령의 힘이 내게 그리스도를 알리셨던 것이오.”

시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그토록 박식하다면 성신의 권세로 내게 표적을 보이시오.”

이에 야콥이 “내가 감히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요? 당신은 그래도 믿지 않을 것이요. 어쨌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을 치실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고 또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야콥이 이와같이 말을 마치자 주님의 권세가 시렘에게 떨어지니 시렘이 그대로 땅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날이 지난 후 그는 많은 사람들을 앞에 불러놓고 자기는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렘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악마의 힘으로 속임을 당했다고 간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고 또 그리스도를 부정하였으므로 심히 두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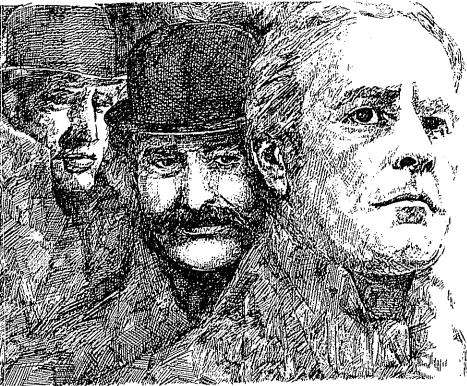
시렘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이내 시렘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야콥에게로 돌아섰고 또다시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과 평화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

어둠 에서

관망

데일 킬본 그림



가 갑자기 통역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두 선교사가 동시에 칼의 질문과 설명을 이해한 것이다. 동시에 칼은 이들의 해답을 영어거나 독일거나 간에 완전히 이해 했던 것이다.

그때서야 칼은 침례를 받을 때 드린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선교사들도 그것이 자기들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으나 그때에는 칼을 침례한 것이 교회 전체에 대한 커다란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칼 지 매서 박사가 침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이십 칠세 때였다. 그때 그는 드레스덴에 있는 부디그 전 문학교의 주임 교사였다. 우수한 생도며 동시에 교사였던 그는 물론 교회 역사를 설명한 소책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물론 교회에 관하여 배우게 되었다. 그는 왜 이 교회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극심한 증오를 품을 수 있었는가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좀더 공부하여 규명해 보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 때에는 드레스덴 근처에는 물론 이 한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우연히 칼은 덴마아크에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선교부장에게 안내 책자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냈고 소책자 몇권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열심히 연구하는 가운데 교회의 가르침에 조금 더 흥미를 갖게 되었고 마침내 선교사를 드레스덴에 보내서 자기에게 교회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후 2개월 후, 그러니까 1855년 10월에 칼은 독일의 드레스덴 근처에서 처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십 일년 후인 1876년 봄 매서 박사는 미국으로 이민하여 쏘트레이크 시 제20와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중에 폭발로 인하여 학교 건물이 파괴되었다. 학교 건물의 폭발 사고를 부리감 영에게 보고하면서 칼은 부득이 학교 문을 닫아야 겠다고 설명했다.

“옳은 생각이요. 매서 형제”영 대관장님이 대답하였다. “형제에게 드릴 좀 특별한 일거리가 있답니다.” 이것이 칼 지 매서 박사가 유타주 푸로보시에 부리감 영 대학을 세우는 임무를 맡게 된 내력인 것이다.

그후 매서 박사는 말일성도의 학교 전체를 관장하는 총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침례를 받던 캄캄한 밤에 칼은 자기가 유대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을 자기의 사랑과 또 복음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밝게 해 줄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못하였다. 다만 그는 이십칠년 동안을 죽어서 살았다고 뼈저리게 느꼈을 뿐이었다.

그의 자녀 증손들은 이 위대한 스승이 남긴 여러 가지 말씀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으며 또 즐겨 인용하고 있다. “무엇을 하든지 가치있는 일을 하라” “먼저 자기에게 충실하되 늘 보다 훌륭한 자아를 찾도록 하라.” ○

● 자기에게 침례를 주고 또 회원으로 확인의 안수를 해준 두 선교사 틈에 끼여 어둠이 깔린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칼의 마음은 온통 절망의 회색 그림자로 무겁게 잠겨 있었다. 그는 이 교회가 인간이 세운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인지를 가르쳐 주십사고 열심히 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는 엘부강에서 올라 올 때 새로운 지평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밤은 아직도 어둡고 하늘은 그냥 먹구름에 가려 있었다. 아무런 표적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어둠을 지나 집에 돌아온 이후 셋은 주로 신권의 권세에 관하여 토론을 계속했다. 선교사 중 하나는 독일어 만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가 칼을 위해 통역을 했고 나머지 선교사는 영어 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대화를 계속하다



우유통

매리 프랫 패리시 저/버지니아 사젠트 그림



● 개척자들이 따뜻하고 정들었던 나무의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천막을 친 곳이 슈가 크리크였다. 불과 이주만에 이곳은 오천의 길손으로 붐비게 되었고 이들은 “서부”로의 전진을 계속하기 전에 부리감 영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미와 벳시에게는 광야에서의 생활이 꼭 도시 생활 같았다. 길 양편으로 정열해 논 포장 마차는 마치 나무 길가의 주택과도 같았다. 포장 마차간의 공터는 풀잎으로 적당히 하늘을 가린채 더운 햇빛을 막도록 했고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고 아이들이 놀기도 했다.

야영지의 복판은 마치 공원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사각형의 공터로 되어 있었다. 그 한쪽에 세워진 포장마차에서 토미와 벳시가 살았다. 밤이거나 낮이거나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들은 밖을 내다 볼 수가 있었고 그 사각형 공터에서 불타는 모닥불과 불을 쬐려고 둘러선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다.

어떤 날 아침 이른 새벽에 토미는 부리감 영이 사각형 공터 복판에 나오시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마치 계곡이라도 허물어 내릴듯한 우렁찬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스라엘의 야영대! 주목해 주시오”

토미는 포장 마차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금방 한 자리에 모일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는 서쪽으로 떠나야 한다고 으면 좋겠어” 토미가 말했다.

“나도 그렇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부리감 영은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는 지난 주에 팔백명이 새로 슈가 크리크에 도착을 했는데 양식이 넉넉치 않으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로 나누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음식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영 대관장님은 남자들에게 각각 남북으로 흩어져 가서 다리를 놓거나 길을 만들거나 담을 쌓는 일을 맡아 하도록 지시 하셨다. 그리하여 그 노동의 댓가로 옥수수나 밀을 받아 오도록 하셨다. 그리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시계나 접시, 은으로 된 식기, 털 침낭, 값진 가구등은 곡물과 바꾸도록 하셨다.

토미와 벳시는 대관장님이 아이들도 냇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모아 오면 음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

부리감 영이 “아멘”이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먼 곳에서 종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에 있는 신전의 종이 울리는 거다.” 토미가 벳시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그 종소리가 토미에게는 부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토미는 마음 속으로 조용하게 부리감 영 대관장께서 지시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모임이 끝나자 토미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한 자리에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먼 여행이 시작된다.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는 먼 길이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재산의 모두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가진 식량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야

관하여 넉넉하게 예비해 둘

으로 결심한 것을 돌이켜 생
관장님이 나누라고 하시지 않았어
말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말씀은 주님의
저는 생각해요.”

음식을 더 필요로 할때에 주님께서 축복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벤티도 지지
다.

아버지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셨다. “너희들
그렇다니 기쁘구나.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
복한 성도들을 나누랄 수는 없다. 아무도 나부
날 준비를 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적어
도 내년 봄까지는 그곳에 있는 줄 알았잖니. 그 중에
는 음식과 도구를 살만한 돈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렇지가 못했단다. 그래서 가옥이나 농장을
헐값에 넘기고는 그 멧가로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것
이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준비하게 되었지 뭐냐.
존슨형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좋은 집을 포장 마차
한대와 바꾸지 않았니.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식량은
있는 것만 가져 왔으니 그게 도대체 며칠이나 가겠니”

“아마 근처 마을로 가서 양식을 좀 얻기 위해 노동
을 해야 할 거다.” 어머니도 말씀하셨다.

“아버지도 일하러 가지나요?” 토미가 물었다.

“그래 존슨 형제와 함께 가기로 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아침 일찍 떠날 계획이다.”



“내 은 수저를 가져 가지구료” 어머니가 말씀하셨
다. “그걸로 다음 풀이 자랄때까지 우리 가족에게 먹
일만큼의 옥수수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제 털 칩냥도 가져 가세요” 벤티가 말했다. “아마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냇가에 가서 버드 나무 가지를 줍겠어요. 그
래서 광우리를 몇개 만들겠습니다. 영 대관장님도 그
렇게 원하셨으니까요.” 토미가 말했다.

모두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존슨 자매가
마차 밖에 와서 서 계신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
다. 그래서 존슨 자매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 모
두들 깜짝 놀랐다. “저의 목도리도 가져 가세요. 그리
고 할머니의 유물인 작은 설탕 그릇도 가져 가세요.”

존슨 자매가 물건을 포장 마차 안으로 들고 들어
오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곧 쓸어질 듯이 비를 거렸
다. 토미의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해 드렸
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그저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별로 먹은 것이 없
습니다.”

토미의 어머니는 존슨 자매를 부축해서 눕게 해 드
리고 “이 비스킷을 잡숫고 계세요. 급히 따뜻한 죽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토미와 벤티와 아버지는 존슨 자매를 그
의 마차로 모시고 갔다. 토미는 바켓스에 감자를, 아
버지는 밀가루를, 그리고 벤티는 우유 통을 각각 들
고 갔다. 우유 통을 들고 가면서 벤티는 나부에

남겨 두고 온 고양이 생각을 했다. 그의
마음속 으로 옛날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들려왔다. “너는 네 옆

에 있는 사람이 굶
주리도록 내버려 두
지 않겠지. 더구나
네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는 없잖니?”

“그럴수가 없습니
다.” 벤티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스스
로에게 그렇게 말했
다. 그는 자못 진지
하게 자기가 한 말의
뜻을 되씹고 있었다.○

독일에서 온 헬가

버지니아 사젠트 그림





젊은이는 누구나 선교사를 마치고 싶다는 소망을 지녀야

리그랜드 레차즈 장로/십이사도 회장 원희

● 내가 소년 시절을 보낸 그 교향에서의 교회 생활이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선교사를 마치고 귀환한 두 젊은이가 우리 와드 성찬식에서 선교사업의 보고를 했다. 그때만 해도 선교사는 돈 지갑이나 전대를 갖지 않고 여행했으며 자기들을 맞아서 재워주고 먹여 주려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야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때에는 또 선교사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다. 그런 상황속에서 선교사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님께 서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증거를 여러번 보기도 했다.

그들 두 젊은이가 전해준 영적인 느낌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으므로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무릎을 꿇고 내가 합당하게 살아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었다. 그러한 나의 기도는 내가 탄 기차가 홀랜드를 향하여 스폴트레이크 정거장을 떠나던 날까지 계속되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남긴 인사는 이랬다. “오늘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당시 대관장단의 보좌로 계시던 앤튼 에이치. 런던 부대관장께서 선교사 모두에게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교만으로써 우물

대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남보다 훌륭해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저들에게 전달해 주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값진 존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그 진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선교 사업을 끝내고 돌아오기전에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나는 적어도 그들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였다. 나는 그 곳에서 내가 홀랜드로 떠날 때 흘렸던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홀랜드에서 처음으로 동반자와 방문했던 집의 그 키가 작은 부인은 얼굴에 온통 눈물이 가득 찬채 앞치마에 까지 눈물을 묻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리차즈 형제, 몇달 전에 딸 아이가 시온으로 떠나는 모습을 차마 못 보겠읍니다. (그 시절엔 성도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하도록 지시했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음) 그런데 오늘은 딸이 떠날 때보다 더하답니다.” 그때 나는 런던 부대관장님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한 것이다.

나는 아버지 뿐이나 되는 어떤 형제를 방문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나의 손을 소중하게 쥐고는 입을 맞추고 눈물로 씻어 주는 것이였다. 나는 또다시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린드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뜻깊게 이해하였다.

나의 선교 사업에서 얻은 경험이 그토록 훌륭했던 까닭에 내가 나의 와드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귀환보고를 했을 때는 마치 주님에게 걸어가 말씀을 드린다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자주 선교사로 보내시어 내가 늘 선교사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소망을 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후로 나는 교회의 선교 부름을 네번이나 받았다. 두번은 선교부의 관리자로 그리고 여러번 선교지역을 여행하는 임무로 해서. 그 후로 나는 커서 선교사로 나가 봉사할 수 없는 아들은 나아서 기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에 큰 빛을 지고 살고 있으며 그 세상에 훌륭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는 부름을 받는 것이다.

조용히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를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준 어떤 선교사에게 큰 신세를 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부리감 영께서 나의 조부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내가 이후에 혹 영 대관장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면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작정이다.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와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이웃을 상실했을 그 커다란 덩어리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이상해진다.

나는 교회의 모든 젊은이가 다 선교사를 꼭 하겠다는 소망을 갖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선교 지역에 나가서 선교사들과 모임을 갖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게되면 대부분은, “귀환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선교사를 하고 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때에는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확실히 이해합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알젠티에서 육개월이나 선교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선교 사업을 하던 동부 출신의 귀환 선교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의 사무실에 들린 일이 있었다. 그 청년을 잘 아는 처지여서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가 선교사를 떠나기 전부터 나는 그의 부모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자네는 선교사로 가 있었던 것이 남아있어서 학교를 끝내거나 결혼을 하는 것만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교회 관리 직원들께서 진정 나

를 행복하게 해 주시려면 나를 다시 비행기에 태워서 선교 지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미처 고향으로 돌아가 가까운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도 전이었던 것이다.

나는 또 서북항공기 회사의 비행기 안에서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곧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된 형제를 만났다. 오래도록 집을 떠나 있게 되므로서 교육과 취직이 모두 뒤로 지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그 일에 관해서 몇가지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세상에 내가 선교사업을 포기하게 할 만큼 큰 돈을 출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른 다섯 명에게 칩케 의식을 베푼 홀랜드의 한 선교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고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춤도 추러 가고 영화구경도 갈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춤과 영화의 즐거움을 준다고 해도 지금 내가 맛보는 이 체험과는 바꾸지 않겠읍니다.”

얼마 전에 나는 알라스카—부리티시 콜럼비아 선교부장과 함께 여행을 한 일이 있었다. 그분의 딸이 그때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 하나를 개종시켰다. 그 후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여름 방학 동안 선교사로 일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선교부장은 다른 자매 복음 선교사가 있는 앵커리지로 보냈다. 그리고 나와 그 선교부장이 그 곳에 갔을 때 그곳에는 열 한명에게 칩케를 주는 칩케 의식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딸 아이가 온통 눈물에 범벅이 되어서 내게로 곧장 뛰어 와서는 “오리차즈 형제님, 저는 평생을 두고 이렇게 행복해 본 때가 없읍니다.”

오레곤에서도 나는 귀환 선교사가 보고하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다. 교회의 개종자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백만불을 주어도 나의 선교사 시절에 경험한 것과는 바꾸지 않겠읍니다.” 나는 그때 그의 뒤에 앉아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작은 나라 홀랜드에서의 선교 경험을 백만 불에 팔지 않겠느냐?”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교회로 안내할 수 있었던 가족들을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모두를 백만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년전 그러니까 내가 남부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던 때였다. 그때 어느 공식 모임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최우수 농구 팀에서 선수로 활약하던 190cm 의

신장의 선교사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 한 일이 있었다. “우리가 마침내 최종 결승에서 우승을 했을 때 동료들은 저를 어깨에 올려 태우고 코트 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까지 경험했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과 같은 이 감격을, 아니 이 회복된 복음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이 감격을 저는 열번의 농구 승리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손자 하나는 호주에서 선교사업을 끝 마쳤다. 그가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귀절이 있었다. “모든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평생을 통해서 제가 이토록 행복하고 보람있고 감동적이었다고 느낀 때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한 나의 손자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 위원장이었고, 최 우수 미식 축구 선수였고 농구팀의 주장 선수였고 전 교회 농구의 우승팀의 주전 선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간증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 내가 소개한 바 젊은이들의 이와 같은 간증은 주님께서 영감으로 저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까닭에 불타기 시작한 것이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의 사도를 사방으로 보내셨다. 그때 예수님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고 말씀하셨다. 자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한 선교사라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 졌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할 것이라고 믿는다.

구세주가 하신 약속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체험한 선교사라면 옛 선지 엘마가 한 다음과 같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엘마 29 : 1)

내가 젊었을 때 유태로 이주해온 스칸디나비아계의 가족의 이야기를 해 주신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큰 감명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들 가족은 복음을 많이 배우지도 못했었다. 다만 복음이 참되다는 것만을 알았다. 그래서 감독은 이들에게 십일조의 법을 가르쳤고 이들은 열심히 십일조를 바쳤다. 그후에 감독은 다시 예배당을 지을 건축 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가족은 건축기금이 십일조에서 나와야 하는 줄

알고 감독의 자세한 설명도 듣기 전에 그렇게 헌금을 정리해 버렸다. 그 다음에 감독은 다시 그 집 아들을 선교사로 부르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다. 그때 그 집의 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가 우리 집 대를 보입니다. 그 아이를 떼어 보낼 수는 없지요. 더구나 독자 아십니까?” 그때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 형제님의 직계 가족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는 잠시 묵묵히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한밤의 태양의 나라인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준 물론 선교사입니다.” 그러자 감독은 “형제님, 이제 형제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물론 선교사가 받는 사랑을 형제님의 아들이 받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감독님, 감독님 말씀이 옳습니다. 데려 가십시오, 제가 선교 비용을 대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늘에 재물을 쌓기를 원한다면 선교사로 봉사하므로써 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하게 된 사람은 평생을 두고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를 잊지 못할 것이며 영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재물이나 금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8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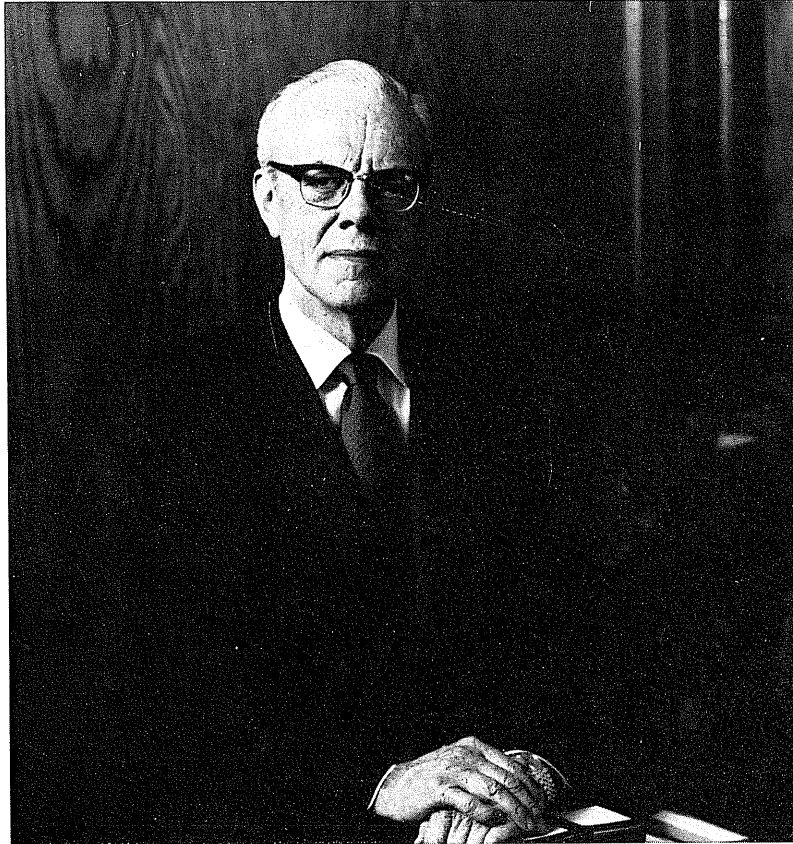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눅 9 : 59—60)

그 다음에 주는 칠십인을 둘씩 둘씩 내보내셨으며 이렇게 권고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눅 10 : 2)

추수할 것이 그 때에 그렇게 많았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을 것이며 선교사의 필요는 또 어떻겠는가? 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모두 선교사를 끝마치겠다는 소망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므로써 자기의 인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과 이세상에서 유익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시다. 아멘. ○

141차 반연차 대회에서 행해진 연설.

이것은 리차드 엘·이반스장로가 마지막으로 남긴 주요한 연설입니다. 이반스 장로가 그의 말씀을 마친 후 대관장단의 부대관장께서는 청소년을 위해 이 연설이 시기적절했고 위대한 내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반스 장로가 얼마나 마음 속 깊이 젊은이들을 사랑하였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이 연설을 통해 주로 젊은이에게 훌륭한 말씀을 해주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의 듣는 사람은 이반스 장로가 마치 절실한 간증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연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몇년뿐만 아니라 이반스장로가 뜻했던 대로 수 많은 사람의 생활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계명이 다시 쓰여져야 할까

리차드 엘·이반스 장로

십이사도

● 최근에 있었던 흥미있는 질문과 또한 똑 같이 흥미있는 대답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질문이란 “계명이 다시 쓰여져야 할까?” 라는 것이었으며 그 대답은 “아닙니다. 계명은 다시 읽혀져야 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훌륭한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러한 계명은 거룩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경험으로 그러한 것의 필요성을 증거했고 그것이 무시될 때 어떠한 일이 생길리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 계명을 합리화 하거나 거부하여 좌절과 불행과 슬픔과 비극 속에서 인생을 보낼까?

십계명부터 읽어 간다면 더 이상 훌륭한 말씀을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읽고 또 읽을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뜻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계명은 이러한 것을 행하라 하고 말할 하는데 이것 역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을 열거해보는 것도 흥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라도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의사라도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복음이 뜻하는 바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무한하고 영원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또한 자유가 있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너희가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계명인 것이다. 선택은 너희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대로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게을리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나 신비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논란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명이나 이에 따르는 요구 사항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필수적이진 아니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명석한 사람, 철학자, 기타 많은 사람들이 수 세기에 걸쳐 이러한 문제와 싸워왔으며 그들 스스로 만족하거나 동의할만한 결론에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자나 교육자, 연구가나 기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예언자와 인생의 목적 등에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 지를 알려 줍니다.

나는 지상에서 덕망을 쌓은 훌륭한 믿음 가진 사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 등 150여개국의 저명 인사들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영생을 두

고 신뢰를 할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경전의 구절을 가지고 논란을 하며, 그들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일을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가끔 “간음을 말찌니라”라는 말씀은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죄악이나 범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지혜의 말씀은 인간에게 이로우를 주지 못한다고 알려진 모든 물질을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들은 모두 열거될 수는 없습니다.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르거니와, 너희에게 죄가 될 일을 모두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죄를 범하는 종류와 길이 여럿인지라 이제 내가 일일이 이를 열거할 수 없도다.”(모사이사서 4:29)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와 상식을 활용하기를 바라시며 인간의 신체와 마음과 영과 도덕을 해치는 것들을 삼가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이건 들기 전에 잠시 멈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우를 줄 수 있을까? 좋은가 그렇지 못한가?”하는 질문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물건은 그대로 있을 것이며 아무리 달리 부른다해도 그 기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온갖 형태의 도덕적인 위반과 범법이 경전으로도 죄악시 취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악함, 불결함, 타락, 부정, 극단, 현명치 못한 습관, 어울리지 않는 행위 등을 금한 경전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히튼 소리를 합니까? 왜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1) 에머슨, 랄프월도(1802~1882) 미국 시인 겸 수필가

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도서 12:13)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자신이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래 전에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보상”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그는 작품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구구포나 수학의 방정식과도 같아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균형을 잡습니다. ...모든 비밀도 다 누설되고, 모든 죄악은 처벌을 받고, 모든 미덕은 보상을 받으며, 모든 잘못된 대가를 치루게 되는데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틀림없이 진행되어 간다.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씨앗과 열매는 서로 분리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원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따르게 되고...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건우기 때문입니다. ...

“얼마를 갖게 되겠는가? 라고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걸우게 됩니다. ...너희가 한 만큼 더 이상도 아니요 더 부족함도 없이 행한 만큼을 얻게 될 것이다. ...

“인간은 자신을 말할 수는 없으나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의견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잘못을 범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고통이 따릅니다. ...

“도적은 자신으로부터 물건을 훔칩니다. 사기꾼은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 “대가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죄를 범한다는 것은 땅위에 내려진 눈위를 지나다니 다랗춰나 여우나 두더지의 자취와 같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 버린 말을 취소할 수 없으며 발자국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항하는 유혹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

“인간은 속임수를 당한다는 어리석은 미신으로 평생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속임을 받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2) 크롬웰, 올리버(1599~1658) : 영국의 정치가, 군인, 종교지도자.

에머슨이 한 말과 근본적으로 같은 말로 성공적인 죄인은 없다고 하신 해롤드 비이.리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훌륭한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보상의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행하려는 일을 깊이 생각하여서 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젊은이에게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이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그것을 범한다 해도 두려운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고 설득력있게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야 할까를 알고 싶거나,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나를 행복과 평화와 최고의 가능한 세계로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저속한 세계로 이끄는 것인가?”

이상을 파괴하고 계명을 거부하며 여러분을 저속한 수준으로 이끄는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언제나 휴 비이. 부라운 부대관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물으신 질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합리화하시겠습니까?”

크롬웰²⁾은 “여러분께 간청하건데...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이끌거나 그의 평안을 망치거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하거나 그의 영생을 해칠 때 과오를 범하고 맙니다.

존 러스킨³⁾은 “자만심이란 모든 실수의 요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자만심이란 회개를 막는 주요한 장벽의 하나인데 이는 우리가 과오를 시인하지 않고는 이를 시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기호가 있기를 빌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자만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겸손과 과오를 시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들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과 그가 주신 지식을 존경하십시오. 인생을 도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닌 전부입니다.

유혹을 이겨 내십시오. 어리석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유혹이나 위험 속에 가까이 왔나를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낭떨어지에 가까이 왔나를 보기 위하여 어리석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가지 말아야 할 곳이나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께서 잘못 길을 들어 왔다고 생각하시거나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방향을 돌리십시오. 회개의 원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밝혀진 바를 찾으려 우왕 좌왕 뛰어 다니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유혹이나 피변을 이겨내십시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세상적인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마십시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고의로 무시해 버리지 마십시오.

부모되시는 분은 자녀들에게 정직, 존경, 청결, 의로움, 의무에 성실함을 모범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삶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사랑과 친절로 함께 뭉쳐 가정울 이루고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전통을 세우고 그의 일원이 되고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계명이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기를 존중하게 되려면 계명이 생활의 지침과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어느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분이 몇달 전에 나에게 남겨 준 생각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잃은 가족을 찾기 위해 별판을 헤매곤 했습니다. 우리가 산골짜기에 올라 갔을 때 아버지께서 ‘저기에 가족들이 있구나’ 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스테이크 부장은 “나의 부친은 나보다 훨씬 잘 보셨으며 나는 종종 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

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잃은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는 그 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며, 그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세주인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고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를 충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느낄 수 있으며, 그의 교회와 복음과 삶의 길이 지상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권고를 받아 들일 때 최고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의 계명을 어길 때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 러스킨, 존 (1819~1900) : 영국의 작가, 문학비평가, 사회학자, 박애주의자.

여러분과 가정복음 교육교사

쥘리 두런트

신권 가정복음 교육위원회
집행서기

● 얼마 전에 말일 성도 소년 둘이서 그들이 살고있는 마을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형제님”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청년을 보고 소년 중의 하나가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서 뭘하시죠?”

두 사람은 아주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소년을 소개하여 인사를 나누었으나 그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옆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두 사람의 정분이 이만 저만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주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남기고 그 청년은 헤어져 갔습니다.

옆에 섰던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분 너희 감독이시니?”

“아니” 먼젓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정 복음 교육 교사야”

자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 교사는 어떻습니까? 서로 서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를 잘 아시나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누구의 과실입니까? 그 교사의 과실일까요? 둘 다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혹은 가정 복음 교육 교사중의 사람도—타인을 대할 때 정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그 무엇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별로 그런 표시를 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내색도 하지 못하는 가정 복음 교육 교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우리를 돕겠다는 사람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젊은이 가운데는 “접근하지 마시오”라는 은밀한 메시지를 전하므로써 가정복음 교육 교사가 자기와 친하려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의욕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방문하는 가정복음 교육 교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복음 교육 교사를 교회에서 만나거나 다른 곳에서 만나고도 저들과 정답게 약속하겠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역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저들의 권고를 구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말은 말씀 순서나 기타 문제로 저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신권 의식이 베풀어져야 할 때나, 가족 이외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만이 알고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혼자서만 행하므로써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가정 복음 교육 교사를 의미한다는 것은 교회 운영과의 가장 긴밀한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 교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임명하여 주신 것이며—이들은 교회와 감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 교사는 교회의 회원을 축복하고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성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혹 여러분은 저들이 무엇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이 저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기만 한다면, 아니 여러분의 걸음으로 오게 해 준다면 여러분은 교회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방문하는 교사도 강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 교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거든 즉시 지부장님께 여쭙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이름과 주소와 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도 여러분이 교통과 사귀를 허가한다면 저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할 수 없이 좋은 친구 둘이 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



● 지난 한달 동안 영국, 남미, 남아프리카, 북미 등지를 순방하며 그곳의 선교사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는 언제나 공통된 질문을 받았읍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특히 우리의 선교사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자기네만큼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하니 분개할만한 일이지.” 물론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배타적인 권능의 위임에 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분명히 당신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종교계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진실하고 옳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는 무신론을 낳게 합니다. 무신론자에 관해서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글을 쓴 캐롤 린 피어슨 자매가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읍니다.

“하나님은 넓은 도량을 지니셔서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바꾸는 유혹에 의롭게 대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한가지의 생각은 성도들이 모두가 옳고 그

*“무신론자에게” (트리로기 아트, 1970), 34페이지

들은 모두가 똑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교사에게 주는 전형적인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난 이미 교회에 속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도 이 교회 만큼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이미 속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똑 같은 곳에서 살다가 세상을 마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다른 면에 잠시라도 그러한 것을 적용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교육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모두 똑 같고, 어느 학교를 다니더라도 어떠한 과정을 공부해도, 얼마나 오래 동안 공부를 해도 똑 같은 졸업 증서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웃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학교에나 학생들을 보내서 어떠한 과정을 공부한 후에 그들이 원하는 농학, 법률학, 의학의 학위를 수여한다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태도는 합당한 과정을 밟지 않고도 누구나 훌륭한 의사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진지하고 실질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

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나 나,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러한 입장을 주장하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어느 학교, 어느 과에 구애받지 말고 학교에 가라. 혹은 학교엔 가지도 말라. 우린 모두 똑같은 장소에서 똑 같은 졸업장을 받고 세상을 떠나지 않는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고 진실함이 없는 말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은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참된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은 피한다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라는 성스러운 의무와 성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허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무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는 주님께서 초기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

보이드 케이·픽커 장로

십이사도

141차 만연차 대회에서 행한 연설

“...이 교회의 기초를 닦아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희미하고 어두운데서 이끌어 내어 온 땅 위에 세울 권능을 갖게 하려함이니, 나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 기뻐한다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말함이니, (교성 1:30)

이러한 말씀은 다른 교회에는 전혀 진리가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약간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종교는 많은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합니다. 흔히 목사나 성직자들에게서 현신적인 면을 볼 수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도덕관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요셉 스미스 2:19)

복음은 흔히 피아노의 건반으로 비유되는데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이 건반을 하나 하나 선택하여 누르므로서 무제한의 다양한 음역을 들려 주게 됩니다. 사랑을 나타내 주는 민요풍의 노래, 행진을 하는 씩씩한 행진곡, 위로를 주는 멜로디, 영감을 불러 이르게 주는 찬송가 등 무한한 다양성으로 모든 사람의 기분과 필요성을 충족시켜 줍니다.

단순한 한 개의 건반을 누르므로

서 끝까지 단조로운 음만을 들려 주는 것은 얼마나 지루하며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전체의 건반인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건반 하나만을 두드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음표는 종교적인 경험의 완전한 조화에 필수적인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그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의 병고침보다 더 큰 힘을 가져다 주는 많은 원칙을 무시하고 신앙의 병고침에 해당하는 건반 하나를 쳤다고 합시다. 또 다른 안식일 준수에 관한 애매한 건반 즉 전혀 다른 음을 내는 건반을 쳤다고 합시다. 그렇게 사용된 건반의 음은 완전히 조화가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무한히 침례의 방식에 관계되는 건반을 치고 완전한 건반이 없다고 보아 또 다른 두 세계의 건반을 눌렀다고 합시다. 다시 그가 꼭 눌러야 할 건반의 소리는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혼자 눌렀을 때 완전히 조화된 음을 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복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것은 끊임없이 강조되며 교회들이 그위에서 세워지는데, 이 복음 하나만으로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혼합되어 마땅히 내어야 할 음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앙의 병고침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습니

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뿐만 아니라 그에 의존하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니며 충만한 복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가 절대로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은 적은 없었는데 이는 이것을 통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며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반이 혼자 쳐질때 즉 권능의 건반이 따르지 않는다면 충만한 조화는 깨지고 말며 그것은 귀에 거슬리는 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과 회개의 건반이 없이는 의미가 없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일 경우는 더욱 나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권능이 없을 때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권의 권능과 권위가 이 교회에 부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의식을 집행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 하느니라”(교리와 성

약 84 : 19~21)

사악한 힘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말일의 시대에 경전에서 말해진 대배도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기독교 교회는 그의 목사나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온 건설에 앞장 서야 할 교회나 성직자들이 텅 비어 있거나 사리를 생각함을 봅니다.

이번의 여행에서 나는 교회가 문이 잠겨져 있고 교회 마당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문은 열려 있으나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경전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자라나는 사람들의 놀라운 사고방식도 당해 보았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지 않으나 이들은 충만한 복음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에 별로 주의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건반, 하나의 교리에 매력이 끌리며, 즉시 반대하고 뛰어 나올 수 있는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들은 그 자체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도 하지 않고 반대와 거부심을 가지고 그 전부를 알려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건반이 눌러지기를 바랍니다. 훈훈함과 조화를 안겨

주는 교리나 기타 사상, 적절한 순간에 적당한 건반을 눌러 들을 수 있는 조화된 소리의 완전함 등을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도자에게만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일부 회원이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방해해 가면서 취미로 한 두개의 건반을 시끄럽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민감도를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만한 복음의 길을 잃고 있으며 많은 다른 교회의 사람과 같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좋아 하는 음표때문에 충만한 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확대되고 외곡되면 결국 배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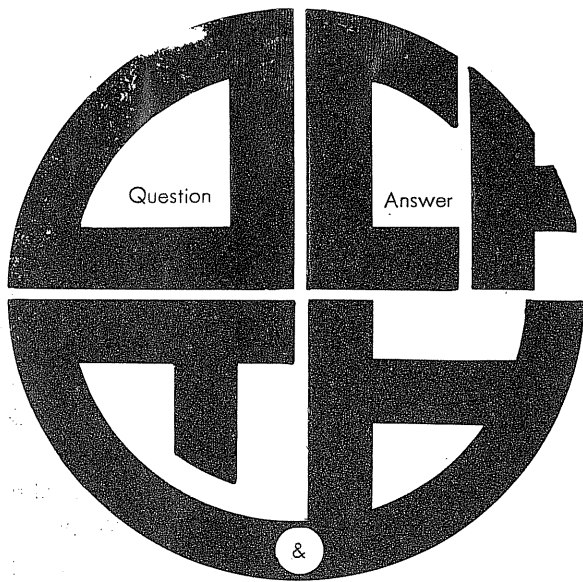
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보다도, 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색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영을 통해 보다 완전히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고전 2 : 10)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전 2 : 13~14)

어떠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교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바로 14세의 소년이 숲으로 들어가 위대한 사업을 착수하게 된 방법입니다. 어느 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합니까?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 때 그는 하나님과 아들의 놀라운 시현을 경험하였고 이로써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한 권능이 회복되었고 아직 이 교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임에서 주님의 예언자이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예수는 구세주라는 것과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생업을 떠 나갈 때 그것이 복음의 표준과 일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나는 현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 교회의 표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자면 결코 일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다.

내가 중창단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나는 라디오나 텔레비에 출연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이 담배나 술이나 차나 커피의 선전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리고 참으로 다행하게도 나는 한번도 그런 것에 관계된

일이 없었다. 물론 내게 그런 프로그램을 맡기려 했다면 거절했을 것이다. 그랬던들 경쟁이 극도로 심한 연예계에서 제작자들의 제의를 수락하지 않는 자로서 “쓸모 없는 놈”의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이내 팔리지 않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재능을 지녔다고 하여 그것으로 소위 성인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일에 가담하거나 그런 곳에 쓰일 음악의 작곡을 맡는 일은 신권 소유자로서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런 류의 영화를 관람하는 일 조차 나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리차드 엘·이반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의 존재가 가능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이익의 추구를 내 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용납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익의 추구라는 미명을 내걸고 세상에 악을 확대하려는 사업에 동조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소위 성인 영화라는 영화를 보지 않으므로 나는 나의 직업과 교회의 표준을 바로 정립시킬 수가 있었다. 물론 나는 이런 사유로 재미있는 음악을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스스로를 향상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종사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까닭에 복음의 표준으로 볼 때 사람에게 해가된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인간의 영적인 자세를 허물게 하는 일체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나의 능력이나 재능을 바치지 않을 작정이다.

“여자는 신권의 혜택을 어떻게 받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셉 필딩·스미스 대관장님은 신권이란 인간을 위한 구원의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요 권능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신권의 혜택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기혼이나 미혼을 막론하고 교회의 모든 회원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일 성도 여자들은 신권의 영광스러운 축



복과 특권을 언제나 누려 왔다. 내가 신권의 축복을 누린 다음의 몇가지 경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1) 부모를 통해서 (2) 남편과 함께 (3) 이제는 남편을 잃은 입장에서.

1. 나의 부모는 신권의 권세와 권능에 의하여 복음을 배우게 되었고 이로서 나는 현재 내가 속하고 있는 교회의 회원이된 것이다.
2. 나는 나의 이름과 유아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평생동안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3. 나는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았고 이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의 문이 내게 열리게 되었다.
4. 나는 확인을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며 이로서 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생을 살아가는 표준의 척도삼을 수가 있었다.
5. 신권 소유자가 성찬을 관리해 주는 까닭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성약을 새롭게 하며 늘 그의 영을 지닐 수가 있다.
6. 나는 신권 소유자를 통하여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고 내가 성실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필요로하는 특별한 지식과 안내와 위안을 얻게 되었다.
7. 나는 감독이나 가정 복음 교육 교사와 같은 영감을 받은 신권 소유자로부터 권고의 말씀을 얻는다.
8. 병에 걸리거나 슬픔과 고난에 잠겨 있을 때 축복과 병고침을 받거나 위로를 얻는다.

다.

9. 신권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과 나는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있다.
10. 나는 신권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삶은 크게 격려되었다.
11. 나는 악의 권세가 신권의 권세에 패퇴하여 쫓겨나는 것을 친히 목격하였고 이로서 안전과 평안을 허가받게 되었다.
12. 나의 가정은 홀몸이 된 나를 도와 주는 가정 복음 교육 교사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

이상에 열거한 것은 내가 신권의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 중의 몇가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권보다 더 많은 특권과 축복을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얻는다. 여자가 신권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결혼이 반드시 그 필요 선행 조건은 아닌 것이다. 신전 결혼과 영원한 가정의 확립이 지상 최대의 목표이기는 하나 결혼 하나만으로 모두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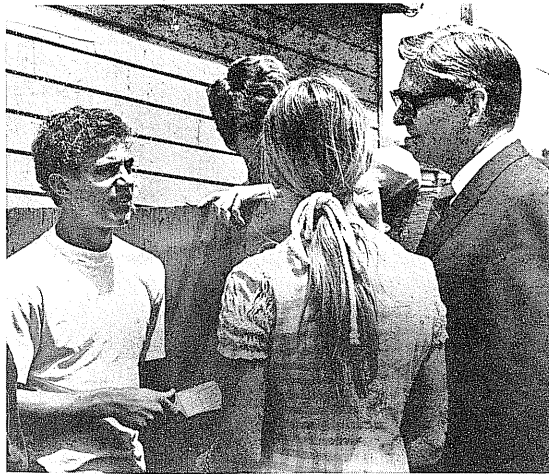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신권의식이나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하며 받을 수가 있다. 미혼녀나 신권 소유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지 못한 여자는 이러한 축복을 권능을 가진 형제들께 요청할 수가 있으니 아버지나, 가정 복음 교육 교사 혹은 신권 역원들에게 요청하면 된다.

신권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해야 하는 엄숙한 책임을 진다. 남자가 신권을 소유하고 또 언제든지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하겠으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도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교성 121 : 36)고 하셨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모두를 이루기 원하는 여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거룩한 신권의 축복을 언제라도 기회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왜 우리는 교회가 후견인이 되거나 우리

“나는 그런 젊은이 운동을 갖지 못하는가?”



교회는 젊은이들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어떤 명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캠페인 정도로 끝나지 아니 하고 실제로 그 명분을 위해서 교회의 청소년들이 무엇인가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말일성도 청년들이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선교사로 나가거나 젊은이의 교육 문제를 다루는 등의 교회의 젊은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머진 우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사업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캠페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지시로 말일성도 젊은이에게 주어지는 캠페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반 프로그램과 활동은 교회의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질서 정연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가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바람직한 사업에 얼마큼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1970년 쉘트레이크 골짜기에서 잘 입증되었다고 본다. 일단의 흑인 교회의 신자들이 예배당 전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왔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아론 신권 소유자 및 교회의 모

든 젊은이를 연합시켜 남을 돕는 사업에 참여 시키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고 느꼈다.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뭉쳐서 차를 닦는다던가 남의 아기를 본다던가 잔디를 깎아 주던가 해서 이웃을 돕기 위한 커다란 모금 운동을 전개해 갔다. 모금 운동의 하나로 여러 감독과 흑인 교회의 자도자와 사회 명사들을 초청하여 자신 연회를 베풀었다. 행진이나 큰 연설이나 푸랑카드는 없었지만 질서 정연함과 따뜻한 우의와 열의로 가득찬 분위기에서 말일성도의 젊은이들은 교회 지도자의 인도로 합당하게 준비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큰 소리로 자기 선전을 하는 무리에게만 정신을 쓰고 묵묵하게 할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은 파소 평가하고 있으나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보다는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게, 또 품위를 갖고 효율적으로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바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하기를”(교성 58 : 27)바라는 바이다.

감독 청소년 위원회와 스테이크 봉사 이삭줍기 평의회가 교회의 청소년(12—16세의)들의 주요 활동을 관장하는 기구라고 본다. 여러분의 활동하겠다는 요구와 소망을 이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제의를 환영하지 않는 기구의 역원이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빅터 엘. 부라운 감독
판리 감독단
제이 보좌

“안식일에 우리는 얼마큼까지 안식을 강조할 것인가?”

누구든지 이런 문제로 한번 쬐은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며 “제 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 즉.....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20 : 10)고 하신 말씀 이외의 구체적인 계명이 주어지지 않은 까닭에 그저 지나쳐 버리곤 했을 것이다.

물론 주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해석상의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납득이 갈만한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가 자체가 건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석상의 난점이 있을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빛에 입각하여 해석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 합리화를 하던가 변명을 하던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가하는 문제는 전혀 우리들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쉬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 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



의 말이니라.”(이사야 58 : 13-14)

이 성구의 내용이나 다른 경전의 말씀의 요지는 결국 안식의 주요 목적은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자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한 사람의 영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의 영을 흡족하게 한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지만 안식일의 참 목적을 분명하게 규명하려 한다면 우리들은 아주 합당하고도 신빙성있는 표준 척도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뜻대로 행하거나 너희의 쾌락만을 좇아 행하지 말라” 고하는 권고의 말씀이 골프나 스키, 영화관람, 야구 등의 오

락을 즐기는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내게는 큰 의미를 전해준다.

존 수산나 웨이슬리는 그의 아들에게 보내는 글에 이렇게 쓴 일이 있다. “만일 네가 사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를 원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기 바란다. 무엇이든 너의 논리를 약화시키고 양심을 무디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영적인 자세를 허물게 하며 육신의 권위로 하여금 이지를 물리치게 하는 그런 일체의 것은 네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일 것이다.”

위에 언급한 표준을 유의한다면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안식일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책임은 우리들의 어깨 위로 옮겨 진다.

무의식 중에 범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영적인 피해를 입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니 위에 언급한 표준을 일체의 안식일의 행사와 면밀히 연결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제력과 훈련을 통해서만 인간은 보다 높은 기쁨을 얻는다.

지금 열 세살인 나의 아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활동이 실제로 그가 더 어렸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가 점점 성숙해 짐에 따라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탐구하고 배우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안식일에 관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대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일주에 셋새만 공부하고 하루를 쉬므로서 더 좋은 성적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하겠다. “...여호와가 셋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출애굽기 31 : 17)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세상적인 요구와 물질적인 수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혹 완전히 세상 일에 몰두하여 하나

나를 완전히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특
 1한 날 하루를 마련해 주시어 우리에게 절
 2로 필요한 영적인 영양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시었다. 윌리엄 이. 버넷트는 이렇게
 말한 일이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안식
 일을 범하는 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나
 책적으로 벌을 주실 계획을 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상태 그것
 이 바로 상이 되거나 형벌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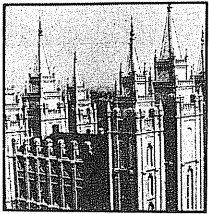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식일이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이며 우리를 정신적으로 박해하려는 것이 아

니고 오히려 살찌게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들의 영이 배부르게 되었을 때 안식일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가하는 날이 될 것이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안
 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건하게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성약을 지켜…너희 가
 운데로 동행하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
 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레위기 26참
 조)

렛셀 시이, 해리스
 이스트 밀 크리크 워드 감독
 변호사

정 책 및 절 차



임시로 머무는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
 임시로 어느 와 드나 지부에 적
 을 두게되는 유 동회원들이 교회의 회원이 라는
 명목으로 교회로부터 부당한 도움
 을 요청하려 한다는 보고를 관리
 감독단 사무실에서는 자주 받게
 된다. 모든 감독과 지부장은 유동

회원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경우
 특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 도움
 을 요청하는 유동 회원의 원 소
 속지 감독이나 지부장과 분명히
 확인하여 그 회원이 합당한지의
 여부와 과연 도와 주어야 할 것인
 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나부의 방문자 션타
 나부 회복 기념 위원회의 주관으
 로 건축이 진행되던 나부 방문자
 션타가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미시
 시피 강 너머로 16에이커를 한눈
 에 바라 볼 수 있는 자리에 완공
 되어 헌납되었다. 이 건물은 대관
 장단의 제이 보좌이신 엔 엘돈 태

너 부대관장님에 의하여 헌납되었
 다. 이 헌납식은 션타에 연결된
 천막에서 거행되었으며 약 4,000
 명이 참석하여 약 125년 전에는
 일리노이 주의 가장 큰 도시였던
 나부시의 초기의 역사에 관하여
 들을 기회를 가졌다.

주일 저녁 토·론
 감독이 주관하는 노 변의 모임인 주일저녁
 토론에는 집사 연령과 꼴벌반 연령의 회원들
 은 참석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교사 정원
 회나 장미반에 소속되어야 비로소 참가하게
 된다. 따라서 감독이 주관하는 노변의 모임
 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을 광고할 때에는 연

령으로 그 대상을 밝히지 않고 각반별로 알
 리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제사와 교사 그리
 고 장미, 월계반의 전원은 주일 저녁 토론
 모임에 참석하기 바랍니다”라고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14세의 꼴벌반 소녀가 참석
 하지 않게 되며 그가 장미반에 소속될 때 비
 로소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 교육
 성 교육이라는 중
 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를 놓고 과연 학교에서
 이를 취급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 문제를 그저 사회에 맡기거나
 학교에 맡기는 것은 그리 현명한 일이나닐

것 같다. 따라서 교회에 일임한다고 해도 현
 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 이 책임은 부모
 가 져야 마땅하며 모든 부모는 이 책임을 철
 저히 수행해야 한다.

결정

엘드레드 지·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141차 연차대회에서 행한 연설

● 다 함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즉 천국 회의가 진행되며 여러분과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상 생활의 기회와 목적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던 때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 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같으신 분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니 또 다른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첫째를 보내리라.’

“이에 둘째가 성내어 자기의 첫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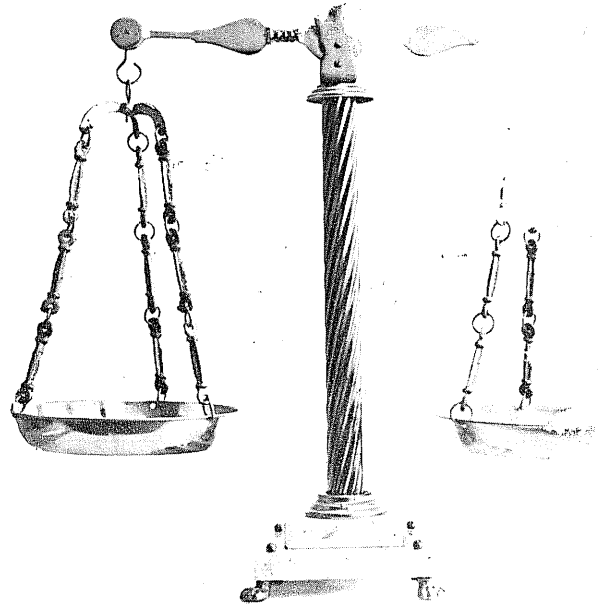
지체를 지키지 아니 하니, 그날에 많은 자가 그를 따랐더라.”(아브리함서 3: 24~28)

아침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형이었던 루시퍼가 아주 달콤하게 유혹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새로운 계획을 주겠다. 이미 나와 있는 계획은 아주 구식이란 말이야; 뭐 이렇가 저렇가 하고 망서릴 필요조차 없단 말이야. 내가 책임지고 다시 모두 데려오지. 한명도 빼놓지 않고 말이야.” 그는 뛰어난 심리학자였읍니다. 그는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는 묘하게 소위 자기의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까닭에 삼분지 일의 천군이 이를 따라나선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권리를 포기해 버리고 자유의지를 비난했습니다. 저들은 결정의 옳바른 의미를 배우지도 않았읍니다. 저들은 선택하는 권리, 그러니까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천국전쟁이 있었고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마침내 쫓겨나고 말았읍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무리는 우리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고, 그런 뜻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는 선택의 자유가 수반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상대되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되는 견제 세력을 극복하는 일이 없이는 발전도 없고, 전진도 없고 향상도 없고 달성도 없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자유의지에 상대되는 세력을 형성한 까닭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자유의지의 존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갖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가장 위대한 재산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려고 하지도 않으시려니와 빼앗을 수도 없으며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발전을 위하여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훌륭하게 사용할 것을 바라고 계시며 또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그의 무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셨 으면서 만일 우리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시퍼가 자기의 뜻에 쫓아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는 천국 전쟁에서

쫓겨난 것이며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

로우십니다. 루시퍼 행하도록 허가받은

수 있을 뿐입니다.

웁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을 웁에게

루시퍼는 웁을 시험할

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단

정도까지 시험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지시를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부를 빼앗아 가는 시험도 있었습니니다. 어떤 시험은 그의 가족을 빼앗기도 했고 다른 시험으로 건강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주는 사탄에게 웁의 생명을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한 단계씩 시험을 받으면서 웁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웁은 우리가 오늘 들은바 있는 불멸의 간증을 남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욥기 19 : 25—27)

우리가 만일 온전한 경지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실때에 생명을 빼앗는 일을 제외한 모든 끔찍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게 도달하는 것이며 승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웁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도에서 우리를 시험하도록 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돕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기록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는 거룩한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교성 9 : 7—9)

주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 : 7, 눅 11 : 9)

결정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당면한 일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루시퍼와 루시퍼의 온갖 수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완전하게까지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혼자 힘과 능력으로 악마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벌써 싸움은 패배로 끝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없이 완전히 자기 개인의 힘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고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들은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께 도움을 구할 때만 사는 법이 이루어지며 복음의 간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따라야 할 여러가지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를 모두 지키려면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시험하시려는 것일 것입니다. 아울러 하늘의 첫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의 법을 우리들이 기꺼이 받아 들이려 하는지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행해 주기를 바라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인간이 자유 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 영원하신 진리 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
지혜와 사랑 빛으로 바르게 훈계하시고 친절과 선하심으로 주 결코 억압 하잖네”

—찬송가 126장—

본인은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권리인 자유 의지의 중요한 의미를 철저히 깨달아 주기를 바라며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며 또 기도로 주께 도움을 구하여 늘 올바른 경쟁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모두에게 풍성하신 축복이 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새로운 관리 감독단



피터슨 감독



페더스톤 감독

지난 4월 6일 쏘트 레이크의 태버나클에서 거행된 142차 연차 대회에서 두 명의 새로운 십이사도 보조와 새로운 관리감독이 지지되었다.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관리 감독이었던 존 에이취. 반덴버그와 그의 제1보좌였던 감독 로버트 엘. 심프슨이다.

신임 관리 감독은 빅타 엘. 브라운으로 그는 1961년부터 반덴버그 감독의 제2보좌직을 맡아왔다.

신임 부라운 감독의 두 보좌는 아리조나 주 피닉스 출신이며 전 십이사도 지역 대표인 에이취. 버크 피터슨 과 보이즈 노우스 스테이크(아이다호 주) 부장이었던 본 제이. 페더스톤이다. 페더스톤 감독은 교회 신권선교사 위원회의 위원이었다.

신임 반덴버그 장로는 새로운 교회 시설과의 관리책임자가 될 것이다. 이 과는 교회 건물과, 건물 관리 및 유지과, 부동산과를 통합할 것이다.

그외에도 그는 많은 교회의 농장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심프슨 장로는 십이사도 보조였던 멜빈 제이. 애쉬튼장로의 뒤를 이어 교회의 사회 봉사 관리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 애쉬튼 장로는 십이사도인 매리온 지. 롬니장로의 뒤를 이어 이과의 고문을 맡게 된다.

관리 감독단의 두 신임 보좌는 자신의 사업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경험이 많은 훌륭한 지도자이다.

48세인 피터슨 감독은 아리조나 주, 콜로라도 주, 유타 주에서 이름이 나 있는 미국 건축 기술 협회에 속해있는 저명한 토목 기술자이다.

41세인 페더스톤 감독은 상품 판매 책임자로 현재는 엘버트슨 서부 연쇄 상가의 지배인이다.

